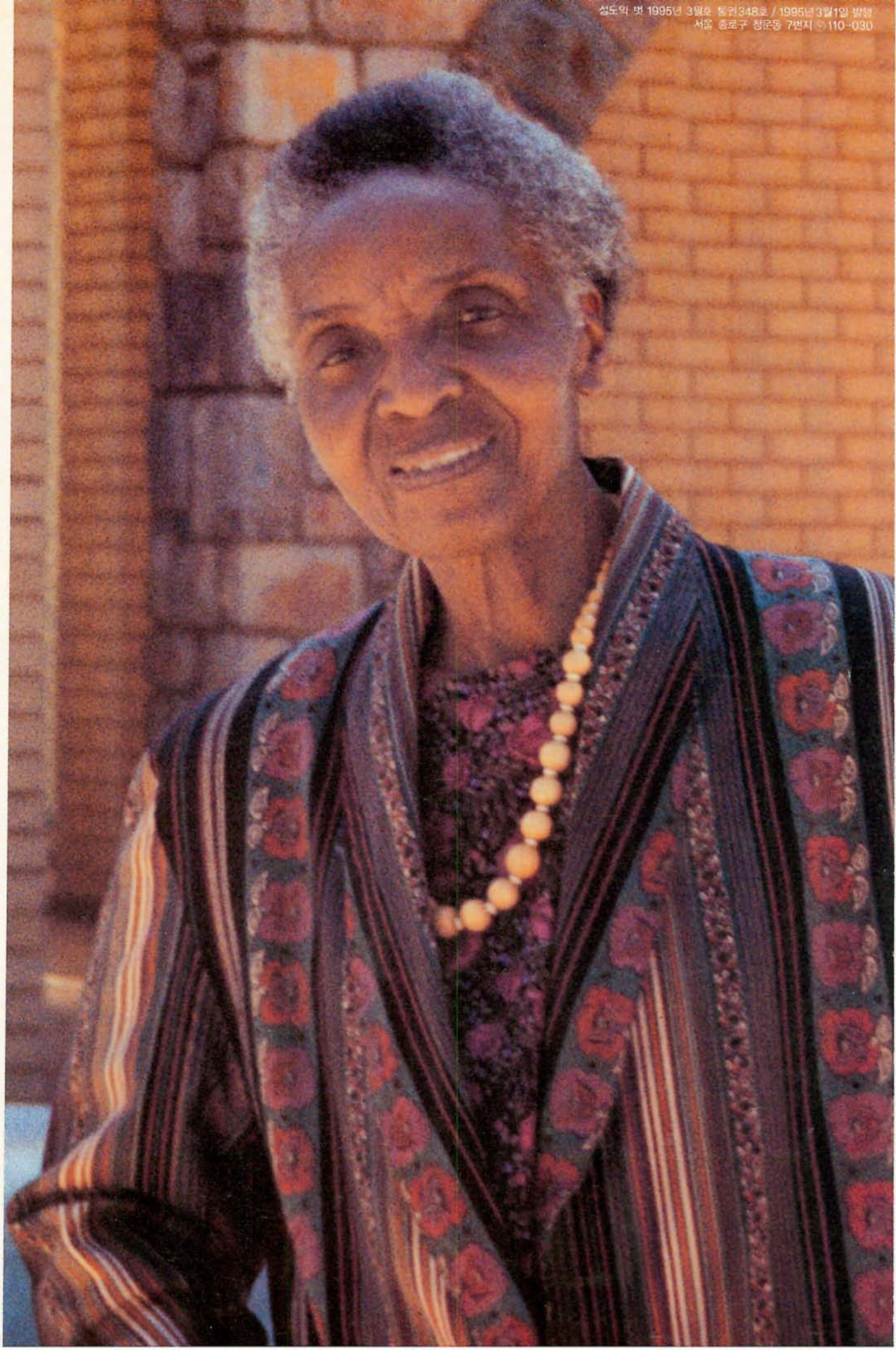


1995  
3월호

# 성도의 벗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책부록 : **어택이론**





### 표지 설명

줄리아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있는  
줄리아 마빔벨라 자매.  
뒤 표지에 보면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성전 앞에 서 있다. 이 성전에서  
그녀는 성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줄리아 자매의 개종 이야기와 지역 사회의  
봉사에 관한 그녀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기사가 42쪽, "줄리아 마빔벨라"에 나와 있다.  
(사진 촬영 : 시 아이 렉스 밴 케일러)

### 어린이란 표지 설명

이름살의 마라우 브라더스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인 타이티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더욱더 아름답게 되었다.  
"친구 사귀기", 어린이란 2쪽 참조

## 일반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
이탈리아어로 된 나의 첫번째 책 살바토레 플로레 .....	8
무한한 욕구, 유한한 자원 글렌 엘 페이스 .....	16
우주 왕복선에서 본 광경 .....	29
따뜻하게 하는 말 사라 브라운 닐슨 .....	30
주님의 비유 제이 엠 토드 .....	32
로빈슨 크루소 섬에서 생긴 일 패트리샤 코바루비아스 솔라 .....	40
줄리아 마빔벨라 대일 르비론 .....	42

## 청소년란

타히티의 윈 재닛 토머스 .....	10
누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테레사 훈세이커 .....	24
영원한 가족 베레니스 베루벤 모데트 .....	26

## 정기특별기사

애독자 편지 .....	1
방문 교육 메시지 "우리 구세주에 대한 더 많은 신앙,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신뢰" ...	25

## 어린이란

친구 사귀기:타히티 파피테의 마라우 브라더스 비비안 폴슨 .....	2
탐험:낙원에서의 150년 비비안 폴슨 .....	4
어린 친구들을 위한 난:초등협회에서 경건함 줄리 에이치 젠슨 ...	7
함께 나누는 시간:나는 계명을 지킬 것을 믿는다 카렌 로프그린 ...	8
성경 이야기 멀리 에이치 옥스 장로 .....	10
심심풀이 재닛 포잇 히긴스 .....	12
이야기:이사야와 타임머신 패트리샤 워녹 .....	13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월 간: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리아어, 스웨덴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개 간: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허워드 더블류 헨드,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심사: 시드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밥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셸 러셀 블러드, 조셉 비 워스리,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다 해럴즈, 제프리 올 즐렌드  
 편집인: 렉스 디 파네가, 조 제이 크리스티슨  
 고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콘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니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리안 케이 웰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셸 엠 기와시키  
 성도의 벗: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볼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어린이란: 디앤 워커  
 스킴을 관리: 배리앤 마틴태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켈렌  
 디자이너: 세리 쿵  
 생산 관리: 레이놀드 제이 크리스티슨, 제인 앤 피터슨, 데니즈 커티, 미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올 피터슨  
 배부 부장: 조이스 맨슨  
 마케팅 부장: 조이스 맨슨, 켈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제 348호, 제 32권, 제 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9166  
 발행일: 1995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윈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물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시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심림아(재주신)하사 김현숙  
 ©1994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3 번역 승인-10/93  
 March 1995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5983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별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8,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는 모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1994년 5월호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역경에 직면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찾게 하고 그 복음대로 충실히 살도록 영감을 준 그들의 꿈에 관해 읽었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성도들이야말로 세계에서 살아 있는 모범입니다.

엘슨 키를로스 페레이라  
 커리티바 포스 와드  
 브라질 커리티바 이가우쿠 스테이크

**새 잡지에 감사함**

이곳 회원들은 새로운 체코어 판 잡지, 리아호나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리아호나는 회원들의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에도 도움을 줍니다. 잡지에 초동협회 노래를 실어 주시고 이 곳 성도들에게 보여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라도반 칸프크  
 교회 번역사  
 체코 프르클라비

편집자 주 : 리아호나(체코어 판)는 1993년 6월에 발행되기 시작한 교회 3대 계간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헝가리어 판과 러시아어 판입니다. 불가리아어 판은 1994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1995년 4월부터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피지어, 길버트어 및 타갈로그어 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상이한 것에서 유사한 점을 찾음**

매달 저는 대관장단 메시지, 뉴스 및

전세계의 성도들에 관한 다른 기사들을 읽기 위해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고대합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통해 그들 모두에게서 우정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문제와 필요 사항을 지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상황, 지역, 인종 및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두 축복받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델리아 준카 시몬  
 메르세데스 지부  
 아르헨티나 메르세데스 지방부

**모국어로 된 잡지**

저는 저에게 생뚜치생-성도의 소리(중국어 판)-을 증명하여 주신 저희 와드 청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달 이 잡지를 읽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롱 아일랜드 근처에는 중국인 지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국어로 값진 복음의 지식을 더 명확하게 얻을 수 있음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전세계의 용기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제 삶에 있어서 위대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

페이 치엔  
 플레인뷰 제2와드  
 뉴욕 플레인뷰 스테이크

**편집자 주**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언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담당자 앞입니다.

The SONGDO-UI POTR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orm a recent issue; change,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 신앙의 기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대**부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연령에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른 어린이들과 초등학교 모임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귀엽고 소중한면서도 이 어린이들처럼 행운을 얻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 저는 다윈시에 최초로 세워지는 말일성도 예배당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 선교부장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는 아이사산 위에 있는 조그마한 광산촌에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 공항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연령의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을 주디스 루든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과 두 자녀가 이 마을의 유일한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인 리차드는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4년 동안 그들은 교회의 지부가 조직된 곳에서는 한번도 살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간단한 모임을 갖고, 매주 가정에서 초등학교 모임을 가져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본부를 통해 가정 초등학교 모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며, 신앙을 지킬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다.  
한 오스트레일리아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은 그들의 가족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다.

저는 솔트레이크로 돌아오자마자 약속한 자료를 보냄은 물론 프렌즈지 구독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신권 모임에서 이 충실한 자매와 그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젠가 그 가정 초등학교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그 선택받은 가족의 남편이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형제님이 일어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형제님, 저는 그 훌륭한 여성의 남편이고 그 소중한 어린이들의 아버지인 리차드 루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초등학교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또다시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도시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는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두고 온 고향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곳의 따뜻한 햇살은 저를 환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팔레모 공원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여기가 1925년 성탄절에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이 남미를 복음 전파 지역으로 헌납하셨던 성스러운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그 땅에서 교회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 영감받은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미국의 아버지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커다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다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추운 겨울로 되돌아가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인 포지 계곡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곳은 워싱턴이 심한 타격을 입고 굶주리며 웃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군대를 이끌고 겨울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조용한 포지 계곡의 한 숲에는 커다란 워싱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돌진하는 말을 탄 모습도 아니고 영광스런 전장터를 바라보는 모습도 아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동안 제게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보다 더 커 보이는 때는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한 성품과 인격과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식하면서 그 권세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은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서 5:8)는 명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기도했으며,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으며, 그 밖에 모든 예언자들이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래 시계에서 모래가 빠져 나가듯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어 갔습니다. 마침내 많은 예언자들이 기도하고 시편의 작가들이 노래했으며 순교자들이 이를 위해 순교당하고 온 인류가 바라던 영광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아기의 탄생은 그 아름다움에서 가히 초월적이고 그 중요성에서 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으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예언자나 지도자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고통과 그 간절한 기도를 그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태복음 26:41) 바로 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매...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모세서 5:4, 5)라고 명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태복음 6:5~6, 9~13)

이 인도의 말씀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열렬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변영, 풍족, 명예, 찬사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오만에 빠져 기도하는 것을 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혼란과 역경과 질병과 사망은 인간의 오만의 성곽을 무너뜨려, 그들이 무릎을 꿇고 높은 곳에서 오는 권세를 간구하게 합니다.

그 어떤 진귀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심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 들으시고  
조만간 응답해 주신다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난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내가 찾는 축복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 길이 나보다 현명하신 주님께만  
내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알아요, 주님 내 요청 들어주시거나,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엘리자 엠 히콕)

젊은 세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응답해 주시나요?" 이 질문에 저는 즉시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만기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인해 깃발이 나부끼거나 밴드가 연주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흔히 조용하고 자연스런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에 있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폭설이 내리는 공항 위 상공을 선회하고 있을 때, 기내 방송을 통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랜드 정션을 통과해야 하겠다는 비행사의 음성이 흘러 나왔습니다. 저는 예언자에 의해 이 대회에 참석하도록 지명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공간이 보입니다.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어느 정도 두려움을 줍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을 했으며, 무사히 대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제가 그 곳에 지명을 받았을까 하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제가 그랜드 정션을 떠나기 전에 스테이크 부장이 저에게 아들이 선교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인해 몹시 낙담하고 있는

어느 부부를 만나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이 모두 떠난 후, 네 사람, 즉 저와 스테이크 부장과 그들 부부는 은밀한 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저는 낙담하고 슬퍼하는 두 부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우리 아들의 결심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제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그처럼 노력하고 있을 때에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아드님이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독일 뒤셀도르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부부의 어깨를 감싸안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총관리 역원이 참석하도록 지명을 받은 서른 여덟 곳 이상의 스테이크 가운데 제가 형제님의 스테이크로 지명을 받았습니니다. 모든 총관리 역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돌아오는 목요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니다.”

주님은 이들 부부의 간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에 응하여 그대로 선교 지역에 남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니다.

몇 년 후에 저는 다시 그랜드 정션 스테이크를 방문해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니다. 그때까지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사랑스런 대가족이 부모와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할 수 있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들이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는 성스러운 의식에 저도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간구하고, 아버지는 노력했으며, 자녀들도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어린 아들이

어비이날에 아빠의 베개 밑에 넣어 두었던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빠를 지금 그대로 사랑해요. 왜 담배를 끊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는데, 왜 아빠만 못 끊으시는 거예요? 담배는 아빠의 건강과 폐와 심장에 해로워요. 아빠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저랑 스킵이랑 그래드, 마크, 제프, 지니, 팜이랑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모두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데 왜 아빠는 그러실 수 없나요? 아빠는 우리보다 더 강하시고 또 어른이잖아요! 아빠, 하늘에서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 그걸 원해요. 우리는 온 가족이 모두 하늘 나라에 가길 원하지, 일부만 가길 원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사셔서 매일 저녁 함께 공원 주변을 도셔야 해요. 아마 지금은 아빠가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라면 안 그럴 거예요. 아빠는 나이는 사람들이 공원 주변을 달리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웃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아버지보다 오래 사실 거예요. 그분들은 폐와 심장과 근육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제발요, 아빠. 훌륭한 아빠가 되어 주세요. 담배도 피우지 마시고 술도 마시지 마시고 무엇이든 우리 종교에서 반대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아빠가 담배를 끊으시고 우리처럼 올바르게 행동하신다면, 아빠와 엄마는 몬슨 형제님과 함께 가서 성전에서 결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봉될 수 있어요.

제발요, 아빠. 엄마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빠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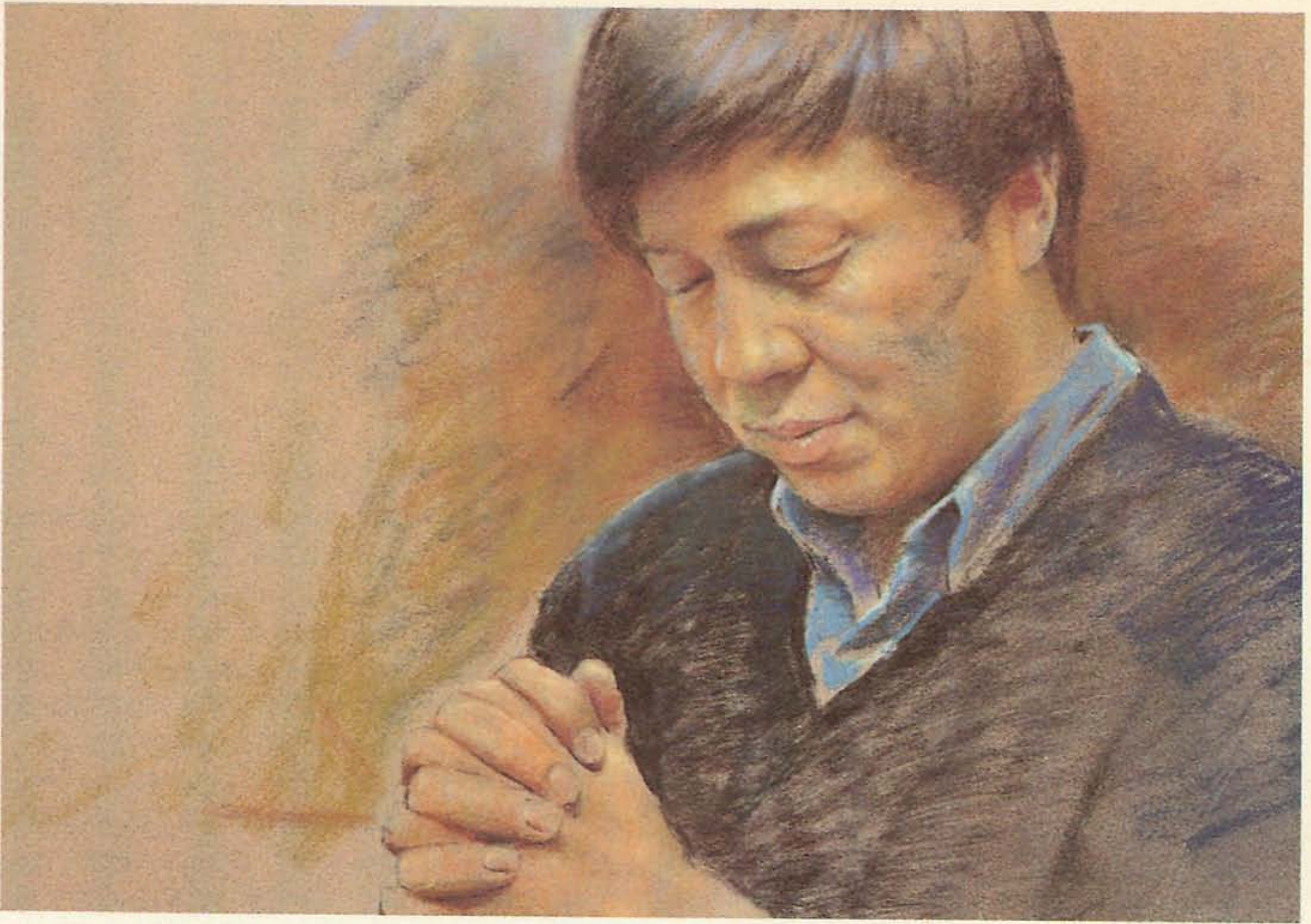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들, 토드

추신 1. 우리 형제 중 아무라도 편지를 썼다면 저와 똑같은 내용을 썼을 거예요.

추신 2. 뉴튼 씨는 담배를 끊었어요. 아빠도 하실 수 있어요. 뉴튼 씨보다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 간청, 이 신앙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이 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응답해 주시나요?"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즉시 이렇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이 모두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성전의 성스러운 방에 모여 있던 그 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곳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으며, 모든 자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의식이 집행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그 저녁이 끝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

가슴 속에 약동하는

보이지 않는 불...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생명, 진리, 길이니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  
가르쳐 주옵소서  
(찬송가, 1985년 61장)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다.
2. 때때로 지나친 자신감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도록 하지만 역경은 다시 무릎을 꿇도록 한다.
3.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4. 인간의 신앙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주 조용하고 자연스런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 이탈리아어로 된 나의 첫번째 책

살바토레 플로레  
볼프강 하이머에게 들려줌

저는 1949년에 지중해 사르디니아 섬의 한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크리스천 교육을 받았으며,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언제나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매우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유일한 언어로 지켜 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자라면서, 여섯 살에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라틴어와 비슷한 사르디니아어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모두가 이탈리아어로 의사 소통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언어에 매혹되었으며, 그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건이 좀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탈리아어로 된 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이탈리아어 책이라고는 학교 교과서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 외에는 저는 어느 소년과 다름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저는 다섯 명의 친구와 마을에서 놀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전거 부품을 찾기 위해 시쓰레기 하치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하치장을 떠날 때, 서로에게 자기가 찾은 “보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발견했는데, 제 친구 프란치스케도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가 발견한 이탈리아어 책

한 권과 바꾸자고 제의했습니다. 비록 표지와 처음 몇 페이지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지만 저는 즉각 동의했습니다. 저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탈리아어로 된 책을 최초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상 그것은 제가 갖게 된 최초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던 리하이, 니파이, 엘마, 힐라덴, 모로나이와 같은 사람들에 관한 종교적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기원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지만,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행복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열여섯 살 때까지 저는 그 책의 이름도 모른 채 적어도 10여 차례 정도를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사르디니아를 떠나 이탈리아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책을 잃어버렸지만, 그 이야기와 가르침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1970년대의 언젠가, 저는 독일로 이사를 갔고, 하이겐의 설탕 기계 공장에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한 기술자가 사업차 미국에 갔다가, ‘다스 부흐 몰몬’이라는 독일어로 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독일어를 잘못했기 때문에-그것이 다소 낮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에, 두 명의 젊은이가 하이겐에 있는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교사라고 소개하고서 그

들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동안 소개해도 되겠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셉 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 헤어질 때쯤, 그들은 제게 책을 한 권 주며 그것을 읽어 보도록 권유했습니다. 물론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내 “나 니파이는 훌륭한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고 시작되는 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훌륭한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동안 이 책의 내용들이 조수처럼 저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열심히 읽었던 바로 그 책을 다시 갖게 된 기적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꼈던 똑같은 행복감과 편안함이 그 기억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책이 진실로 거룩한 경전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세워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곧 그분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1955년 사르디니아의 쓰레기 하치장에 찢어진 몰몬경을 누가 버렸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물을 소개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



왼쪽: 살바토레와 캐린 플로레는 1979년  
스위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위: 그들의 자녀 이사벨, 안드레와 함께

아래: 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살바토레

# 타히티의 원

재닛 토마스

사진 촬영 : 글쓴이



위: 에디슨 프랫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복음을 전파한 그의 희생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다. 알로나 로삼키에오우(오른쪽)같은 현재의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그 섬을 떠나 전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새롭게 침례를 받고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던 선교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새로운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그를 타히티로 보내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가슴은 감격이 북받쳐 오른다.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치렀던 모든 희생이 보람 있는 일이 되었다.

또 다른 침례식에서 열 네 살인 한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자매 선교사를 껴안는다.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수천 마일이나 되는 집을 떠나왔지만, 이 선교사는 그러한 것이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느낀다. 감동도 똑같고 희생도 똑같은 두 선교사의 이야기.

이 두 선교사의 이야기가 150여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대양의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처음 선교사는 에디슨 프랫 장로로서, 1844년 타히티 인근의 태평양 지역의 교회에서 첫 번째 회원들을 침례 주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 선교사는 타히티 원주민으로서 1993년에 고향을 떠나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갔던 바바라 나우타 자매였다.

교회가 조직되어 오는 동안,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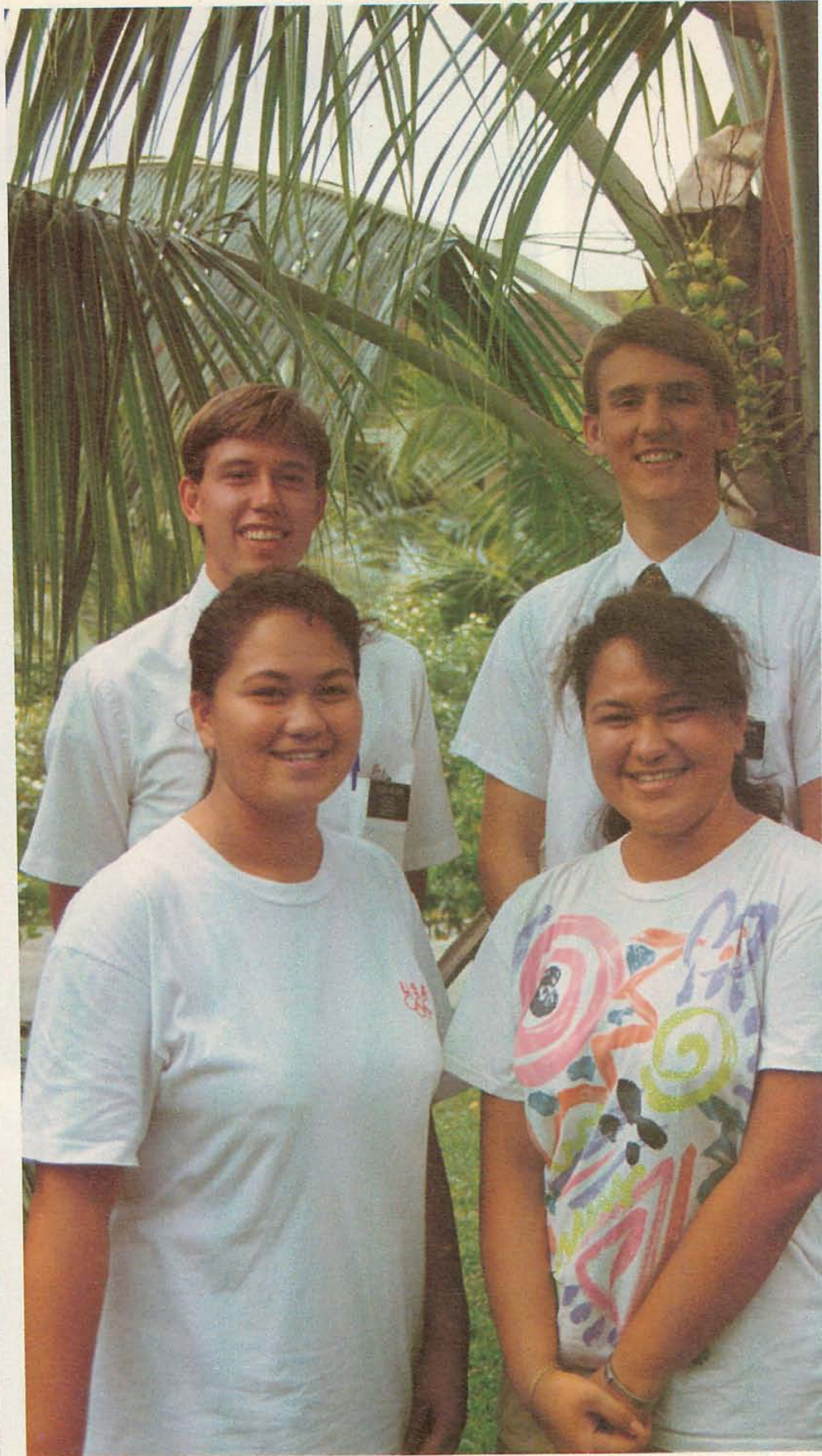
들은 타이티와 같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희생을 치러 왔다. 타히티에서 선교 사업은 이제 완전한 원이 되었다. 오늘날 젊은 타히티 섬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떠나 다른 섬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첫번째 비영어권 지역의 선교

약 150여년 전,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조직된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첫번째 선교사들은 지금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섬이 타히티이다. 그들의 임무는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온 것이었다.

타히티와 그 주변의 섬들에 도달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거의 일년여 동안 여행을 해야 했다. 에디슨 프랫, 벤자민 에프 그루어드, 노아 로저스 및 놀튼 에프 헝스 장로 등 첫번째 선교사들은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 항해해야만 했다. 그들은 일리노이주 나부를 출발하여 태평양으로 가는 포경선을 타기 위해 동해안까지 육로로 여행을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서양을 항해했다. 그 곳에서 좋지못한 건강으로 고





생하다 숨진 행스 장로를 바다에 장사 지냈다. 그들은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건너, 동남아시아의 많은 섬들을 지나서 타히티 바로 남쪽에 있는 투부아이 섬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 그들이 나무를 떠난 지 거의 일년 후의 일이었다. 그 섬 주민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프랫 장로는 곧 인기를 얻었는데, 그것은 몇 해 전에 선원으로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하와이 말을 조금 익혀 두었기 때문이었다. 투부아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몇 년 이내에 타히티를 포함한 몇몇 섬의 교회 회원 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8년 후, 정부는 선교사들에게 떠나도록 요청했다. 40여년 동안 선교부는 문을 닫게 되었으나, 충실한 회원들은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선교부가 다시 개설되면서 그 섬의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성장 속도는 빨랐다. 현재 타히티와 주변 섬에는 네 개의 스테이크와 한 개의 성전, 그리고 이십 여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때가 되면 곧바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있다.

150년 전의 그 선교사들처럼, 타히티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봉사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예를 들면, 타히티에서 자란 바르바라 나우타 자매는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캐나다의 구도자들이 그녀가 따뜻한 고향 타이티를 떠나 또 다른 언어(불어와 타히티어를

말할 수 있는 바르바라 자매는 영어를 배워야만 했다)를 배우고 추위와 폭설을 견디는 것에 놀라워 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 한 명의 특별한 선교사

오늘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150여년 전의 첫번째 선교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 이후에 봉사했던 다른 선교사들, 특별히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하고 있다.

무레아 섬 하우미 지부의 올해 17세의 쌍둥이인 티타이나와 티타우아 제르마인 자매들에게 있어서, 넬슨 장로와 스노우든 장로는 그러한 특별한 선교사인 것이다.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얼굴까지 꼭 닮은 쌍둥이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복음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을 때,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행하는 교회를 알게 되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 쌍둥이 자매는 침례를 받기 위해 18세가 되는 생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은 모든 교회 모임은 물론 신학 연구원에도 참석했다. “저희 둘 다 넬슨 장로님과 스노우든 장로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 들었던 순간부터 흥미를 가졌어요.

우리는 사물에 대해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티타이나 자매(아니면 티타우아 자매?)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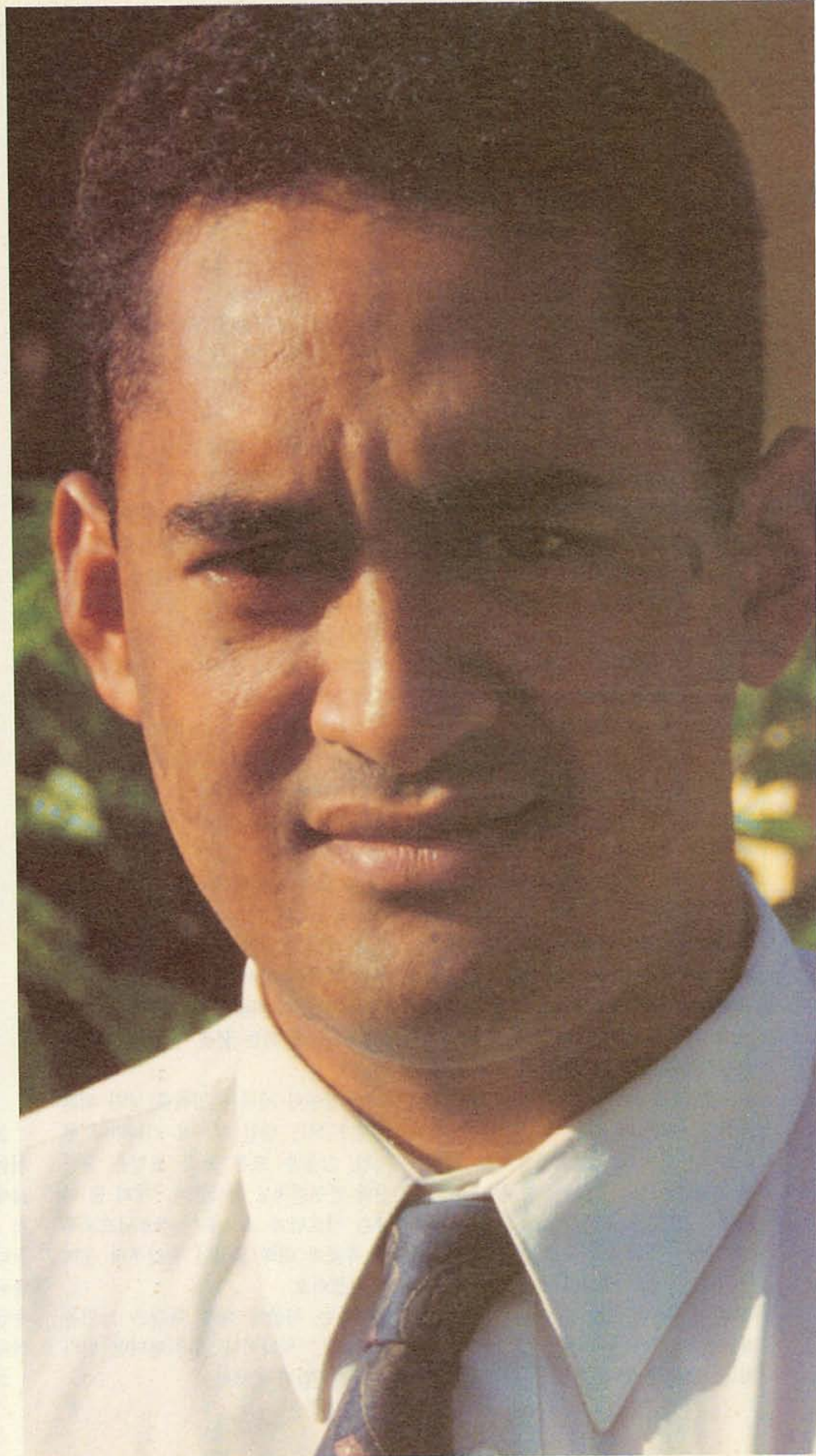


위: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돌아온 바르바라 나우타 자매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위해 열망하는 많은 타히티 젊은이들 가운데 단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왼쪽: 쌍둥이 자매인 티타이나와 티타우아 제르마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넬슨 장로와 스노우든 장로와 함께 포즈를 취했다.

### 여러 세대에 걸친 물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는 살아서 숨쉬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다. 하피티의 14세 된 리안나 타라후 자매는 멀리 갈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면 된다. 그분들은 아주 오래 전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 존 퍼리만 장로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녀의 조부모님 때문에 리안나는





왼쪽: 스틸리오 마우아히티 장로는 영이 사람들의 생활에 훌륭한 변화를 주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14세 된 리안나 타라후 자매는 언젠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한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3대 몰몬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리안나도 그녀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했다.

리안나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부모님들은 제가 자라는 동안 복음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경전을 공부해 오고 있어요. 제게 특별한 순간이나 경험은 없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저의 간증을 조금씩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세미나리에 참석해서 복음에 관한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세미나리 덕분에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준비되어서 봉사할 수 있을 거예요.”

리안나는 선교 사업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 그녀는 니파이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이 있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구라고 말했다. 리안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약속은 또한 제가 한 약속이에요.” 만약 그녀가 아주 먼 곳으로 부름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받자, 리안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열한 명의 남매들 중 맏이이다. 그녀는 가족들을 그리워할 것이며, 그들도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다. 잠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한

다.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미국이나 런던, 아니면 프랑스에 보내시더라도, 저는 가서 봉사 할거예요”.

리안나의 경전 앞쪽에는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붙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불어로 된 것으로 *Soyez Fort*, “굳건해지라”라고 쓰여 있다. 리안나는 그것을 자주 본다.

그녀가 표준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리안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여기는 매우 더운 곳이지만, 지도자님들은 저희에게 소매가 있는 드레스나 블라우스와 같은 정숙한 복장을 입도록 권유하십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표준은 훌륭한 것이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 삶의 변화를 지켜 봄

스틸리오 마우아히티는 타히티 섬의 파에아에 있는 멋진 건물 옆에 살았다. 그는 그 곳이 교회라고는 들었지만, 어떤 교회인지는 알지 못했다. 교회 앞마당은 항상 깨끗했고,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다. 일요일에는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기 때문에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자기 또래의 소년들이 옥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는 하얀 와이셔츠에 진한 색 바지를 입은 두 명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곧 그는 그들과 함께 농구를 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복음을 공부하기로 했다. 그들의 침

례식에서 스틸리오는 언젠가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날이 왔다. 마우아히티 장로는 프랑스로 폴리네시아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의 첫번째 임무 중 하나는 라이아테아 섬에 있는 우투로아 마을로 가는 것이었다. 선교사로서의 생활은 그가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의 생활과는 많이 다르다. 지금 그는 하얀 와이셔츠에 진한 색 바지를 입은 젊은이이다. 지금 그는 교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옥외에서 농구를 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멋진 것은, 마우아히티 장로가 150여년 전 프랫 장로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자기의 고향, 타히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보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마우아히티 장로는 말한다. “저는 교회 회원 가정과 비회원 가정의 차이점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영으로 감동되어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제 자신이 아니라, 그의 종인 선교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입니다.”

지금 많은 프랑스로 폴리네시아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알로나 로삼키에오우 자매의 예를 들어 보자. 그녀는 태평양에 있는 그리운 고향 라이아테아 섬을 떠나 템플스퀘어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멀리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여행했다. 그녀는 150여년 전 태평양 제도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모범을 따르는 한 명의 젊은 프랑스로 폴리네시아 선교사인 것이다. 선교 사업이 완전한 원을 그렸다. □



# 무한한 욕구 유한한 자원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철십인 정원희

세계 도처에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들이 높는데, 우리는 어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요**즘 신문을 보면 연일 자연 재해, 국민, 전쟁, 테러, 엽기적 살인, 질병 및 온갖 사악한 행위들에 관한 보도가 머리 기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진리가 풍성하게 주어진 시대에 일반 사회는 자유의 미명 아래 방종한 길을 걷고 있으니 정말 우스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파괴된 가정과 육신과 이성과 정신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상은 물질, 인적 자원이 드는 원조를 수없이 많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원은 유한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복음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떤 욕구든지 충족시켜 줄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교리와 성약 104:15~17)

##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우리가 사회에서 재난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은 이 경륜의 시대의 경전에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겨우 9개월 후인 1831년 1월 2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계명 하나를 주노니,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으며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었음이니라. 부자도 내가 만들었으며, 모든 육체는 나의 것이니,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38:16)

그로부터 한 달 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네 재산을...저들에게 나누어 주

어야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42:30)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같은 해 6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를 통해 다시 설명되었습니다. 주님은 28명의 장로들에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미주리주 잭슨군으로 돌씩 짝을 지어 여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가야만 했으며 가는 도중에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가난하여 원주민 마을을 거쳐 가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출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 (교리와 성약 52:40)

그것은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전을 연구하는 중에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기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이 목표를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여만 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와드와 스테이크의 회원 및 같은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에 휩싸여 있는 지역의 성도들까지 돕습니다. 교회 조직은 우리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감독은 주님의 지혜를 통해 그들이 관리할 사람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감독은 와드의 회원들을 개인으로나 그룹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궁핍한 회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관인 교회는 회원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손을 내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에 관해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회원이 되기 위해 매년 얼마나 많이 주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든지 다른 교회에서든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든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야 하며, 과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타임즈 앤드 시즌스, 1842년 3월 15일) 요셉 스미스의 이 간증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앨마서 1:30)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경전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자로 있을 때 교회의 울타리 너머까지 손을 내미는 문제에 관해 더욱 큰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이디오피아의 가뭄에 관한 특집물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관장단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역경에 가슴 아파하고 또한 회원들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결의를 갖기를 소망하며 1985년 1월에 특별 금식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11월에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백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첫번째 특별 금식으로 모금된 기금을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저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과 함께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그 곳 상황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그 곳에서 매우 감명 깊고 영혼을 고양시켜 주며 신앙심을 키워 주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듯, 저희가 본 고통받는 이들의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수없이 쏟아 붓는 사랑과 봉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봉사를 하는 박애 정신이 가득 찬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11년 동안 티그리라고 하는 가뭄과 전쟁에 찢든 곳에서 봉사해 온 천주교 사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지역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텔레비전과 뉴스 매체들이 보도하기 훨씬 전부터 그 곳에서 봉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모습으로 식량 배급소로 가는 약 80세쯤으로 보이는 이디오피아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거의 아사 직전까지 이르렀던 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식량 배급소로 오시는 도중에 사막으로 변한 마



이웃에게 사랑을 보인다는 것은 홍수가 난 뒤  
 자원하여 청소를 해주는 이 말일성도들처럼  
 온 몸이 진흙탕과 물에 흠뻑 젖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참여  
 한 모든 사람이 단합하고 안병을 누리는 축복  
 을 받게 된다.

울을 지나다가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  
 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한 아기가 땅에 쓰러져 숨겨 있는 엄마  
 옆에서 앉아 있더라는 것 입니다. 이 노  
 인은 자신이 쇠약해져 있었으면서도 그  
 아기를 안고 식량 배급소까지 장장 25  
 마일을 걸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분  
 은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당혹스런 모습

이었지만, 그분의 첫마디는 "너무 배가  
 고파요."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바  
 로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회원들이 고통을 덜  
 어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  
 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는 요즘 우리의 복음 선교사들이 일주  
 일에 몇 시간씩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에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감명 깊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  
 그램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선교사들의  
 주요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몇몇 복지 선교사  
 들을 지켜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던 적  
 이 있습니다. 복지 선교사 자매들이 교

회 뜰로 걸어 들어가자, 그곳은 갑자기  
 감동적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들 할 것 없이 모두 그  
 자매들에게 달려가 껴안는 것이었습니  
 다. 최근에 자연 재해가 있었는데 그 자  
 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재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몇 명의 아  
 기들을 살려 냈고, 몇몇 가정에서 일부  
 가족이 숨졌을 때 남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영  
 과 육을 위한 식량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 인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가난하고



사진 촬영 : 미빈 케이 가드너

한 필리핀 지부의 말일성도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바구니 짜는 일을 하고 있다. 지부의 많은 회원들이 이 바구니를 판매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활동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은 말일성도들 자신과 우리의 불쌍한 회원을 보살피는 것이 성도들의 첫째 되는 의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보낼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곧 교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가족을 보살피야 합니다.]” (복음 교리, 278쪽)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회의 문제점들도 도와야 할 여지가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과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그 둘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나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39)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회생하거나 배제한 채 가장 우선해서 행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구세주에 대한 사랑도 진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른 채하고서는 교회 회원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염려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야 합니다.

### 나누어 주는 자들을 축복함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이 예겐 무언가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자신의 욕망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될 때, 복음의 힘이 그들의 생활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헌납의 율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6쪽 참조)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야 할 책임을 교회에 전적으로 미루게 되면 이 아름다운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원을 돕는 문제든 비회원을 돕는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십일조

와 금식 헌금을 바치고 나면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결케 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도움을 줄 때 가능케 됩니다. 따라서 각자 우리의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서 하는 봉사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든지 우리 주위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더욱 숙선 수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가 1992년에 창립 1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계에서 지역 봉사 활동을 벌였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더 풍요로운 나라의 와드들이 바다 건너까지 손을 내밀어 덜 풍요로운 나라의 와드들을 돕게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 사업이 자매들의 뒤들이 아닌 5천 마일 밖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은 양로원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만나고, 위기 관리 센터에서 만난 어느 여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지체 부자유자가 10년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말끔히 청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며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직접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신용을 얻거나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아낌없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봉사를 할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매우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양쪽 다 교훈을 얻고 영적으로 결속되게 됩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감쌀 수 있을 만큼 마음 속에 큰 사랑이 자리잡게 됩니다.

## 문제들을 지역 자체에서 해결함

모든 사람들은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나 가장 가난한 성도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빈곤이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그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만큼은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경제 수준을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원리를 해치는 것이며 해방보다는 구속을 더욱 굳건히 할 따름입니다.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품으로써 얻는 성결함을 맛보기 위해 서로를 희생해야 합니다.

수년 전,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던 중에 한 스테이크 부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스테이크에는 이전에 3년 동안 회원들의 실업률이 50 퍼센트가 넘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스테이크가 그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서 보조금으로 2백 달러도 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스테이크 부장님에게서 외부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회원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여쭙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뿐만 아니라 삼촌, 숙모, 사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서로 돕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촌이 직장을 잡으면, 그가 번 돈으로 가족 모두를 돕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워드 회원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주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스테이크 회원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몇 갑절 커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잘 사는 지역에서 모금하여 이 스테이크에 보태 줄 수도 있었으며, 또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그러는 중에 성결케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란 극히 복잡한 것이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적은 도움을 줘도 문제가 되어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자립심과 자활 능력은 키워 주지도 않은 채 도움만 줄 경우, 비록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은 실패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한, 단 한 명의 말일성도도 겪어서는 안되는 비참한 상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정수할 수도 약도 살 형편이 못되는데 풍성하게 잘 산다고 해서 만족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거룩한 진리를 배웠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서 성결케 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 자신을 내주어야 함

우리는 주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그들의 곁에 나태하게 앉아 있기만 하고서는 살아가는 동안 성결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 기관이 실시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도와 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구조적인 선을 그어 고통받는 사람과의 사이에 간격을 두게 해서 안됩니다.

이러한 철학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훨씬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해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자신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벽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아도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들의 감독도 아니고 심지어 가정 복음 교사나 가정 방문 교사도 아닌 한은 말입니다. 종종 여러분을 향해 도움을 간청하는 절규가 있을 때도 있으며, 여러분이 아니면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계명의 기본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헌금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헌금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라도 내놓을 수





트리니다드의 이 사람들처럼 교회 회원들은 서로를 돕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을 얻는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배움으로써 오는 만족감을 경험한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구세주의 산상 수훈 뿐만 아니라 산상 수훈을 전하시면서 행하신 일에도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주님은 산상 수훈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23~24 참조)

저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면에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이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음과 몸과 영으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돈으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교회 부름 때문에 세상을 돕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도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

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 개인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 원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무한한 욕구를 여러분의 유한한 자원과 관련지어 연구한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총관리 직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가슴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누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테레사 훈세이커  
사진 촬영 : 멜라니 섬웨이

드디어 스쿨 버스 882번이 비포장 도로로 돌아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3일 전에 친구들과 심한 논쟁을 했던 일로 아직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교한 친구들이라고 불려야 할까요? 나는 그들이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멈추었을 때, 나는 코니와 비키 앞을 지나서 통로를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면서 다시는 그들과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다투는 꿈을 꾸면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하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책을 움켜쥐고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현관 문을 광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나갔을 때 버스가 막 도착하여 멈추었습니다.

나는 코니와 비키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리를 찾으면서 통로를 빨리 걸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창가에 가까이 앉아 그들을 보지 않는 체하였습니다. 그들이 변할 때까지 다시는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역사 책 읽기 숙제를 하기 위하여 역사 책을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내 손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쓴 **완전으로 가는 좁은 길**이란 책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집에서 달려 나오면서 우연히 그 책을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그 책이 펼쳐졌는데 내가 가장 읽을 필요가 있는, 즉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제목이 붙은 장이 펼쳐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39절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다음의 말씀들이 나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러한 구절들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코니와 비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 날 아침 버스에서 나는 내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 “우리 구세주에 대한 더 많은 신앙,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신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교” (에베소서 3:17)

**느**고 충실하며 예루살렘의 과부인  
**리** 안나는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며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여인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깨달았을 때 그 여  
인의 신앙은 보상받았습니다. (누가복  
음 2:36-38 참조)

## 신앙은 우리가 신뢰를 갖도록 해 줄 수 있음

신앙이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엘마서 32:26 참조)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말씀처럼 진실로 신앙이란 확실  
한 증거가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  
라 그 이상의 것을 믿는 것이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빛의 가장자  
리까지 걸어가고 또 거기서 어둠속으로  
몇 걸음을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  
니다.”(신앙,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출  
판사, 1983년, 42쪽)

한 여인은 자신의 여덟 살 난 아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어둠의 시절을 견디어  
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때 충실했던 내세  
에 대한 저의 간증이 심각한 위기에 처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산산  
히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  
의 회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일 따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고쳐  
달라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마가복음 9:24)라고  
구세주께 간청하고 부르짖은 아버지처럼  
저도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림 : 주디스 메르

그것은 궁극적으로 위안을 주는 신  
뢰로 이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었  
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자신의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구세주에 대한 신앙으  
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니파이이서  
31:20) 저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 여인  
은 회상합니다.

## 우리는 구세주를 믿고 신뢰해야 함

경전에는 12년 동안 병을 앓은 한 여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가복  
음 5:26 참조) 그녀는 알려진 모든 치  
료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병은 더욱 악  
화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구세주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을 향해 헤치고 나아가 그 분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곧...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마가복음 5:29)라고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  
서는 그녀의 신앙이 그녀를 온전케 했  
다고 손수 그 여인에게 확신시키셨습니  
다.(마가복음 5:34 참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런 종류  
의 신앙이나 신뢰를 가장 많은 예들  
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합니다. 또 어떤 사  
람들은 친구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만이 지속적  
인 힘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98~  
100쪽 참조)

교육이나 돈과 같은 세상적인 힘의  
근원에 대한 신뢰는 혼란과 기대에 어  
긋나는 희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인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방해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  
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  
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구세주께로 돌  
아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  
겠습니까?...

“우리는 믿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귀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95쪽)

• 어떻게 우리의 회의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바꿀 수 있는가?

• 어떤 방법으로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



# 영원한 가족

베레니스 베루벤 모데드

**아** 버지가 30여년 전인 1963년에 침례받았기 때문에 1993년 초에 우리들 딸 셋이 모두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것은 그다지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사실 뒤에는 진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이그나시오 베루벤)는 젊으셨을 때 침례받았지만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에스터 모데드라는 이름의 천주교에 다니는 여성과 결혼해서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저는 셋째입니다.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몰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으나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몰론 교회의 진짜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런 이름인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름다운

느낌을 주었고 여러 날 동안 제 머리 속에서는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함께 교회에 가자고 저와 오빠인 이그나시오에게 권유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를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른 노래까지 기억합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던 사랑의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모임이 끝난

뒤: 과달라하라 시내에서 자녀인 이그나시오 베루벤 이세, 클라우디아, 베레니스 및 라비베와 함께 한 이그나시오 베루벤 일세와 그의 아내, 에스터. 오른쪽: 베레니스는 단기 선교사로서 영원한 가족에 대한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향 마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선 세 명의 귀환 선교사. 왼쪽부터 : 라비베, 베레니스, 클라우디아

뒤, 저는 선교사 토론을 듣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다음 화요일에 두 명의 선교사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께 교회 모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신중하게 생각하거라. 종교를 바꾸는 것은 장난이 아니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지하게, 심지어 필사적으로까지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종파의 모임에 참석했었으나 어떤 모임에서도 결코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그 모임에서 느꼈던 훌륭한 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첫번째 토론에서부터 저는 찾고 있던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제게 침례를 받을 것인지 물었을 때 저는 주저 없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성령이 저의 결정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0년 4월 29일에 오빠와 저는 침례의 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제가 본 첫번째 분들은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을 잡고 계셨고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계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축복이 저의 가족에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침례받으셨으며 다

음으로 둘째 언니인 클라우디아가 침례받았고, 마지막으로 큰언니 라비베가 침례받았습니다. 1991년 7월 23일에 우리 가족은 주님의 집에서 함께 인봉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1992년 6월에 언니 라비베가 멕시코 몬테레이 북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1월에 둘째 언니가 선교 사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멕시코 베라쿠루스 선교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북음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어리지만 12월초에 만자닐로 시에서 3개월간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1993년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 세 딸은 모두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편지도 서로 자주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 자매가 선교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종류의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찾거나 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30여년 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셨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셨지만, 후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영원한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지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언젠가 우편에 앉으라고 권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가족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



# 우주 왕복선에서 본 광경

**리** 차드 시어포스와 꼭 같은 위치에서 세상을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이 지구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궤도에서 매우 분주한 동안 나는 순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창 밖을 내다보며 바깥의 광경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몰두합니다.

모든 임무는 직업적으로 보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겸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의 조종사, 시어포스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텍사스주 프렌즈우드 스테이크의 리그시티 와드 회원인 시어포스 형제는 "궤도에서 지구를 보면서 저는 저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더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얻기 위하여 우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미 공군 중령인 시어포스 형제는 1993년 10월 현재까지 가장 긴 항해가 되는 14일간의 생명 공학 연구 임무에 6명의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다. 조종사로서 그는 왕복선이 상승하여 진입하는 동안 일을 하게 되는 중요 대원 가운데 한 명이였다. 우주에 있는 동안 그는 관찰자로서만이 아니라 관찰 대상자로서도 매우 많은 실험에 참가하였다. 그의 임무에는 지구 관찰, 공학 실험 및 항공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원들은 하루에 16시간 동안 일했고 여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어포스 형제는 박사들이 임무로 준 정규 훈련 일정과 함께 몇 차례 무중력 상태에서의 공중제비를 저녁 시간 일정에 끼워 넣었다. 그는 또한 보통 아침 식사 후에 몇 분 동안 경전을 읽었다. "우리는 약간의 개인 소지품을 지닐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사진을 소지했습니다. 저는 아내 줄리와 딸 미간과 엘리자베스의 사진을 가운데 갑판 록커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몇 개를 카드로 만들어 가져 갔습니다."

"저 하늘에서 경전한 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그저 일상적인 걱정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에게로 열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시어포스 형제는 벌써 자신의 장래의 임무를 기대하고 있다. "저는 직업 우주 비행사입니다. 저는 다시 저 하늘에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말일성도 우주 비행사인 리차드 시어포스 형제는 우주 비행선인 컬럼비아호를 타고 우주 항해를 하면서 자주 경건한 순간을 경험했다.



# 따뜻하게 하는 말

사라 브라운 닐슨  
그림: 달린 마쉬

“나 는 당신 목소리 들으려고 집에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오.”라고 제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그의 말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짧은 말 한 마디가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급히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지러진 부엌을 치우는 등 어머니로서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일로 매우 분주한 아침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말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기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사려 깊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말은 주님의 영이 임재하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 결과로 언젠가 우리는 “아내는 훌륭한 여인이었어, 그래서 한 번쯤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무덤가에서 애도하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배우자는 특히 말에 민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혼생활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 위로하는 말

제가 오래 기다려서 가지게 된 새 차를 처음으로 손상시킨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차의 펜더(바퀴 덮개)가 움푹 들어갔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마음을 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라고 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실수를 했을 때, 위로의 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려하는 말은 감사의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자존심을 지켜 줍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저에게 자기의 남편이 공중 전화 부스 안에 지갑을 놓고 와서 마음이 심란해진 채 집으로 돌아온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의 처음 반응은 짐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의 무책임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슬프고 고통에 찬 얼굴을 힐끗 본 그녀는 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짐세는 몇 주 늦게서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는 비난받지 않은 데 대해 안심하는 남편의 얼굴 표정을 보고 침묵을 지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미 마음이 상한 남편에게 비난을 퍼부어서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 칭찬하는 말

제가 몹시 걱정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준비했던 말쑤를 스테이크 대회에서 전한 후, 남편은 “훌륭했소.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니 몰라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노력과 성취에 대한 진지한 칭찬의 말은 실수에 대한 이해의 말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과가 칭찬을 받을 만하게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힌 부엌 배수관과 씨름하고 있는 야심에 찬 젊

은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개수대 아래서 구부린 자세로 고군 분투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화가 나서 도구를 땅 내려놓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어질러 놓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고치려고 했느냐고 할 때 그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혹은 남편의 멍든 머리에 대해 동정심을 표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한 남편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너희 어머니가 앉아 식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식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라고 제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요리사에서 여왕으로 높여 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활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만약 작은 일들이 돌보아진다면 큰 일들은 저절로 돌보아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복이 거창한 행사나 거대한 부나 자극적인 오락이나 어마어마한 성공으로부터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생활을 이루는 일상적인 일에서 발견됩니다. 존경과 지지와 감사의 말이 일상적인 일을 기억할 만한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글로 하는 말

“셔츠를 잘 다려 주어 고맙소.”라고 남편이 쓴 쪽지가 화장대 위에 놓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글로 쓰여진 말은 우리가 줄 수 있는



# 은혜주



"아무도 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한 너희 어머니가 앉아 식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식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요리사에서 여왕으로 높여 주는 말이었습니다.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선물을 오랫동안 간직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순간 순간마다 저는 아들의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힘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마루를 걷고 있는데,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나도 고통스럽소 당신이 괴로워 할 때면 나도 괴롭소"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알 때 인생의 짐과 고통은 가벼워집니다. 경전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2)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동정과 이해의 말은 필요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라고 저희를 방문한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때문이지. 할아버지는 항상 칭찬하는 말에 인색하지 않으셨단다. 그 말이 나에게 격려와 자존심과 기쁨을 주었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구세주의 사랑이 가득하단다."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

가장 멋지면서도 비용이 가장 안 드는 선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제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사 보낼 돈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아들은

선물 대신에 가슴깊이 느끼는 사랑과 가정에서 가졌던 다정한 기억들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과를

# 주님의 비유

제이 엠 토드

**신**약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양, 꽃, 빛, 나무와 같은 용어는 주님이 청중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심어 주신 존엄과 진리로 그 용어들을 쓰심으로써 영원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회칠한 무덤, 낙타, 수확하는 들판과 같은 비유의 대상들은 거의 어느 곳이나 존재했습니다. 경청자가 구세주의 가르침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그저 주위를 돌아보기만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상징들의 일부는 의미가 덜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계속 증가

하고 세상이 더욱 산업화됨에 따라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일반적이던 광경들이 지금은 기껏해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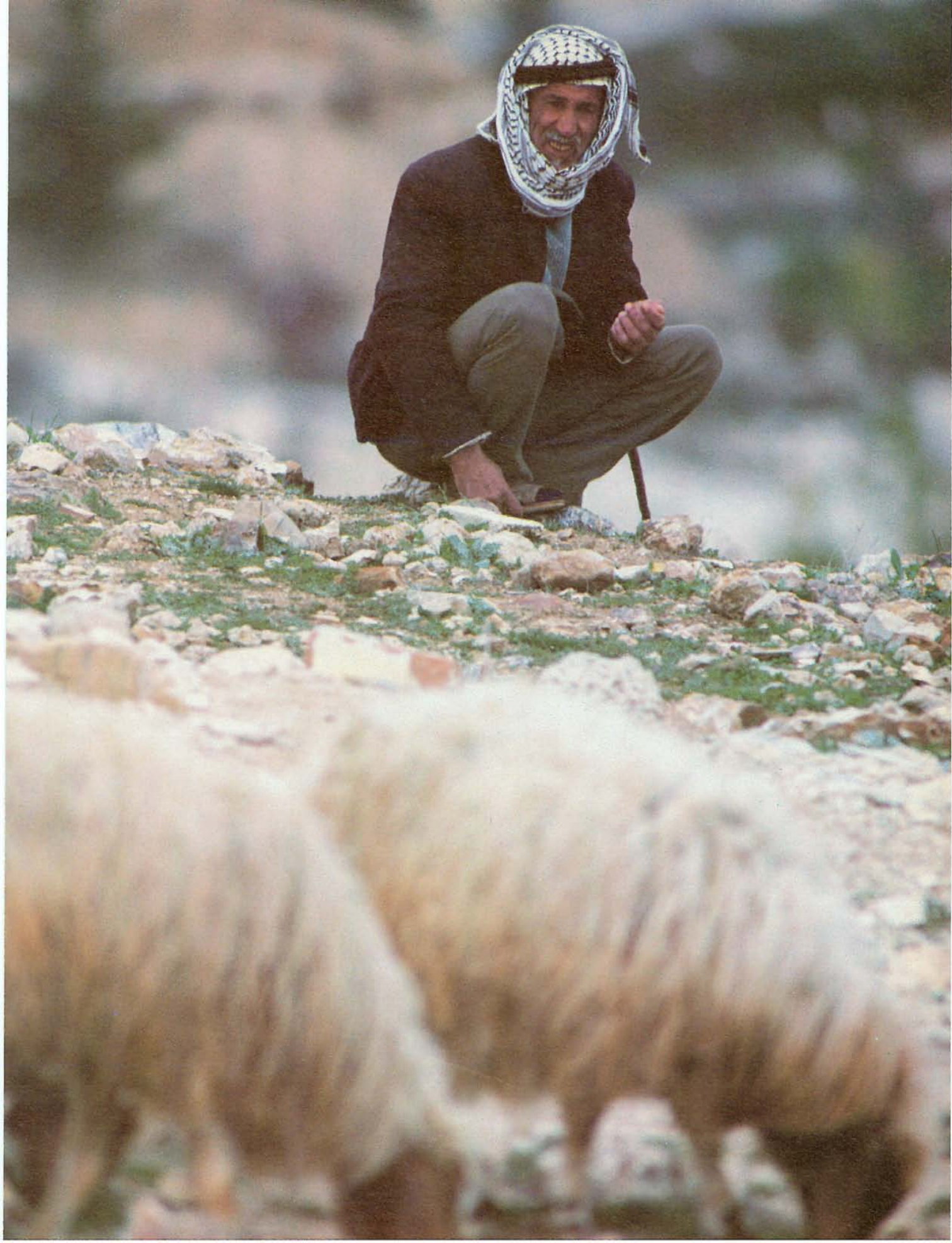
다음에 나오는 사진 설명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면, 광경 그리고 사물들은 모두 예수님이 걷곤 하셨던 마을, 언덕, 그리고 그 부근에서 찍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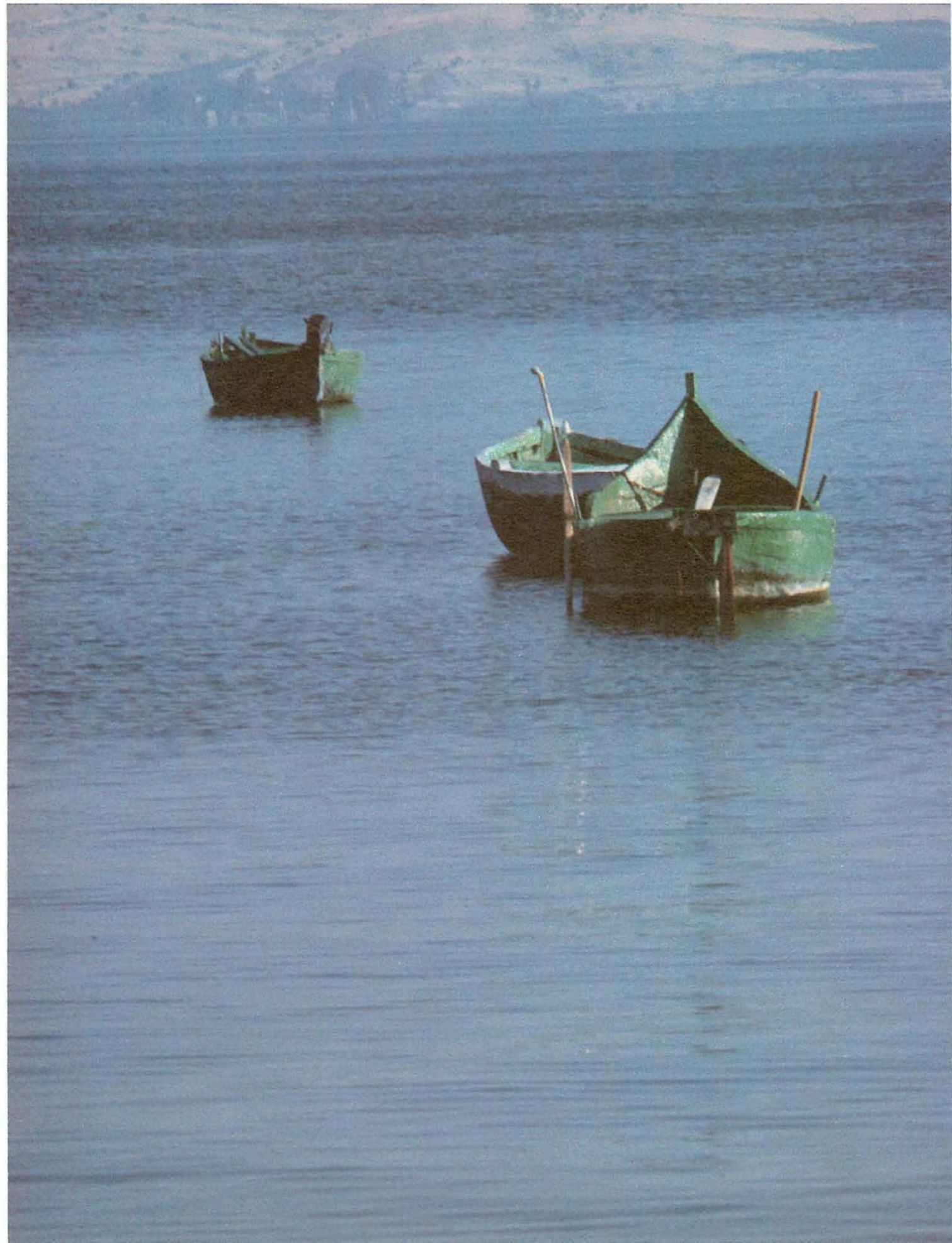
계속해서 복음서로부터 모은 말씀의 상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분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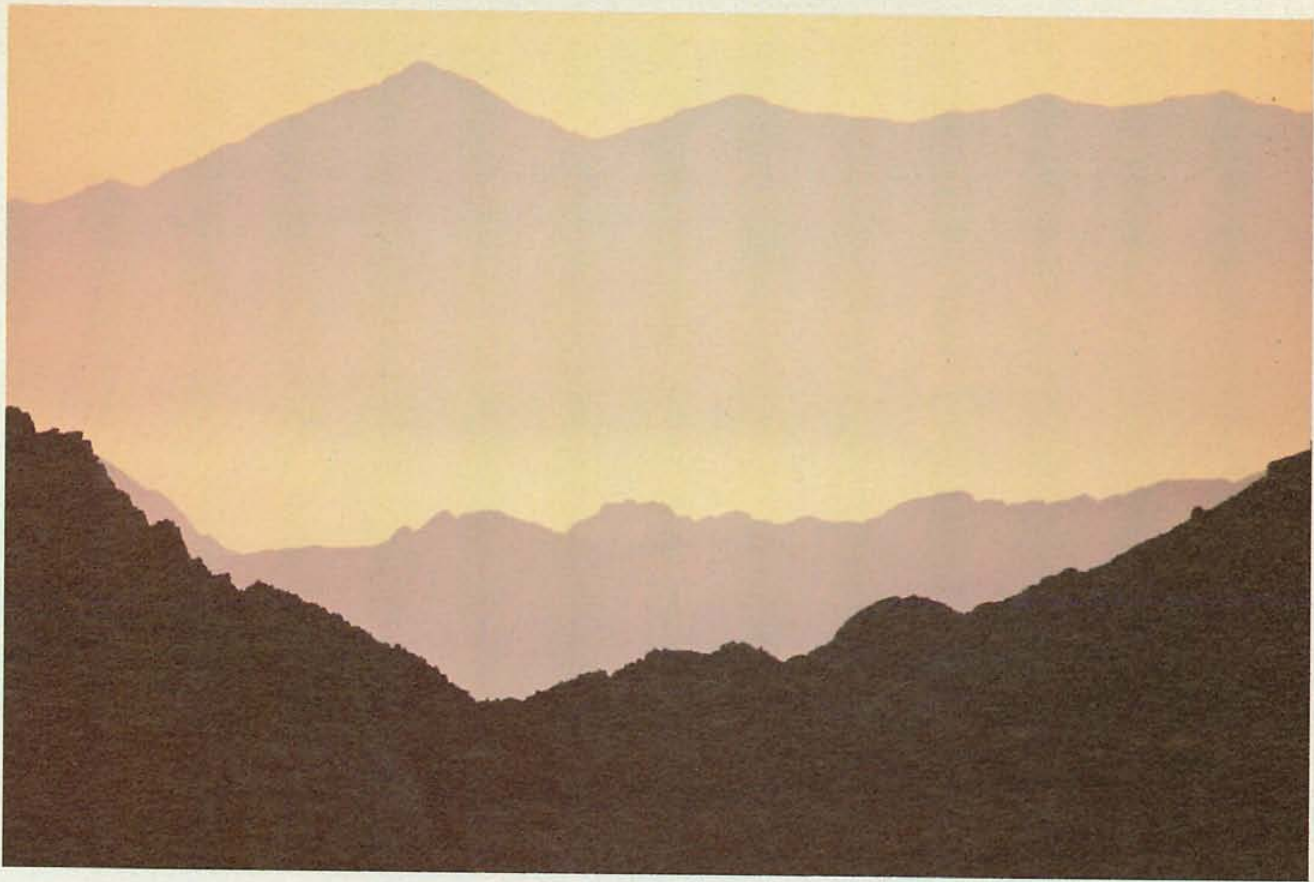
여기,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0:3~5, 14, 27~28)







**왼쪽과 위** :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19)

**맨위** :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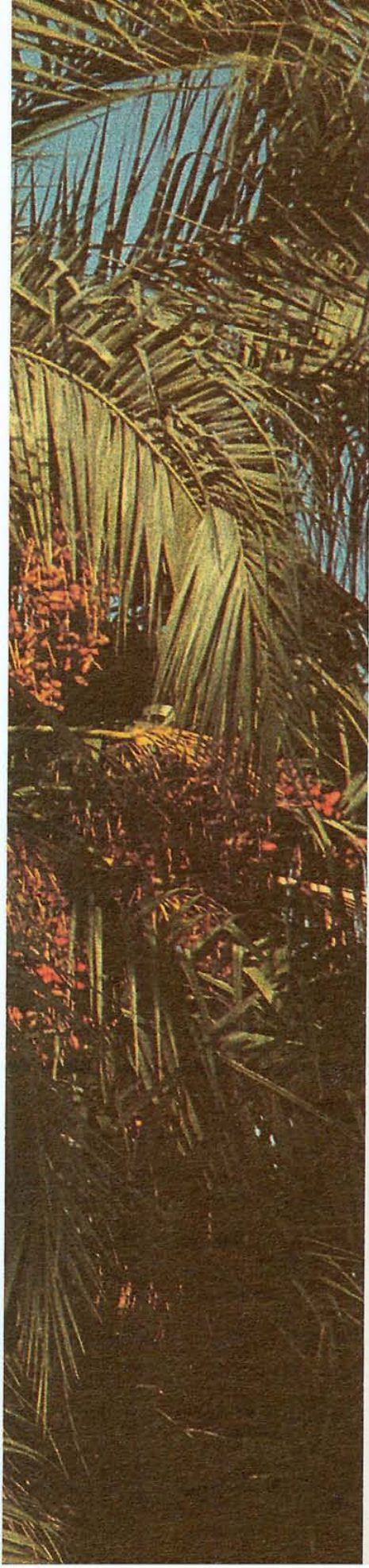


**중앙** :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5:4)



**오른쪽** :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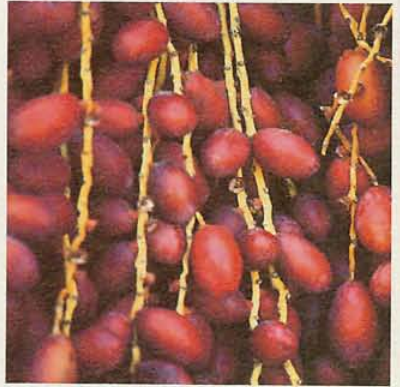


**왼쪽 및 오른쪽 두번째 :**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영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16~17)

**오른쪽, 첫번째 :**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  
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2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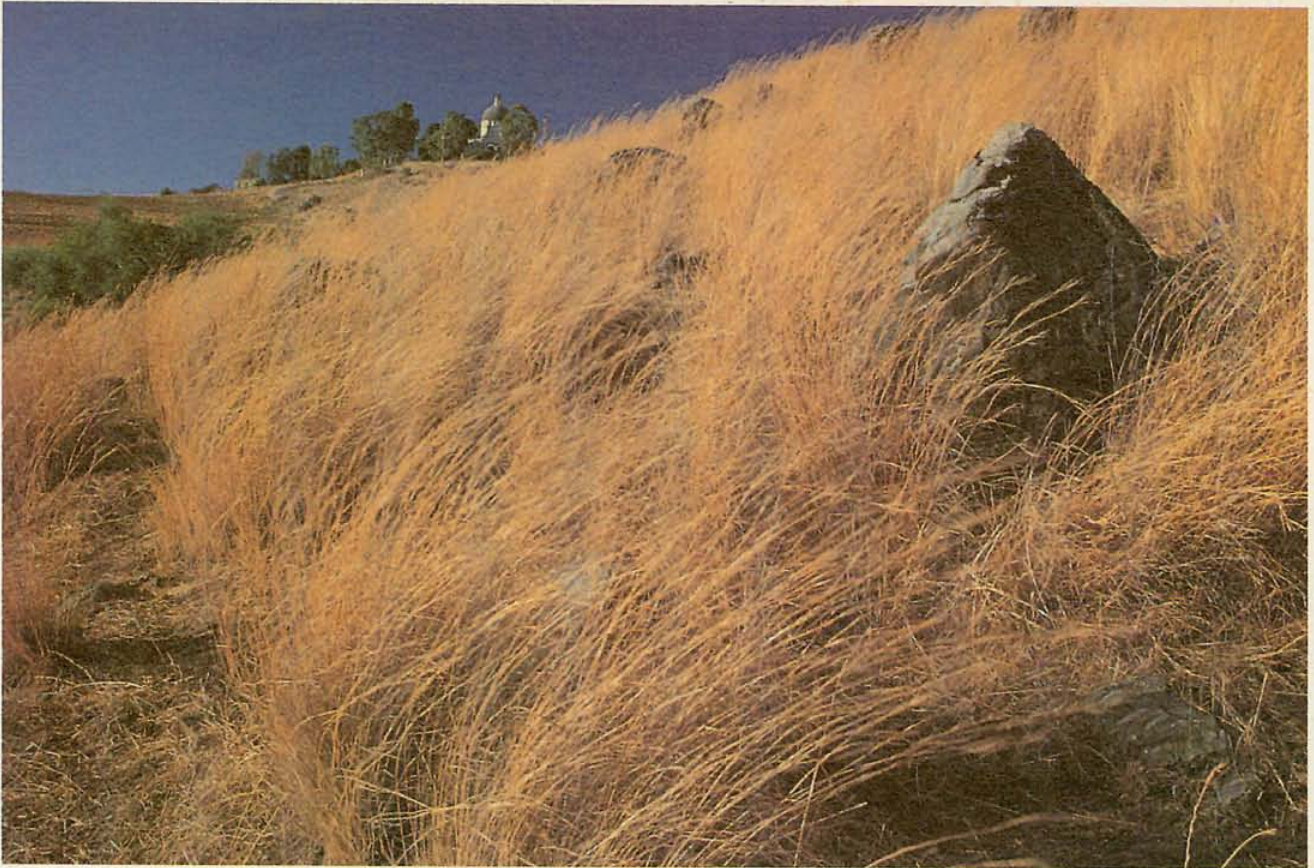
**오른쪽, 세번째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마태복음  
5:13)

**오른쪽, 네번째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36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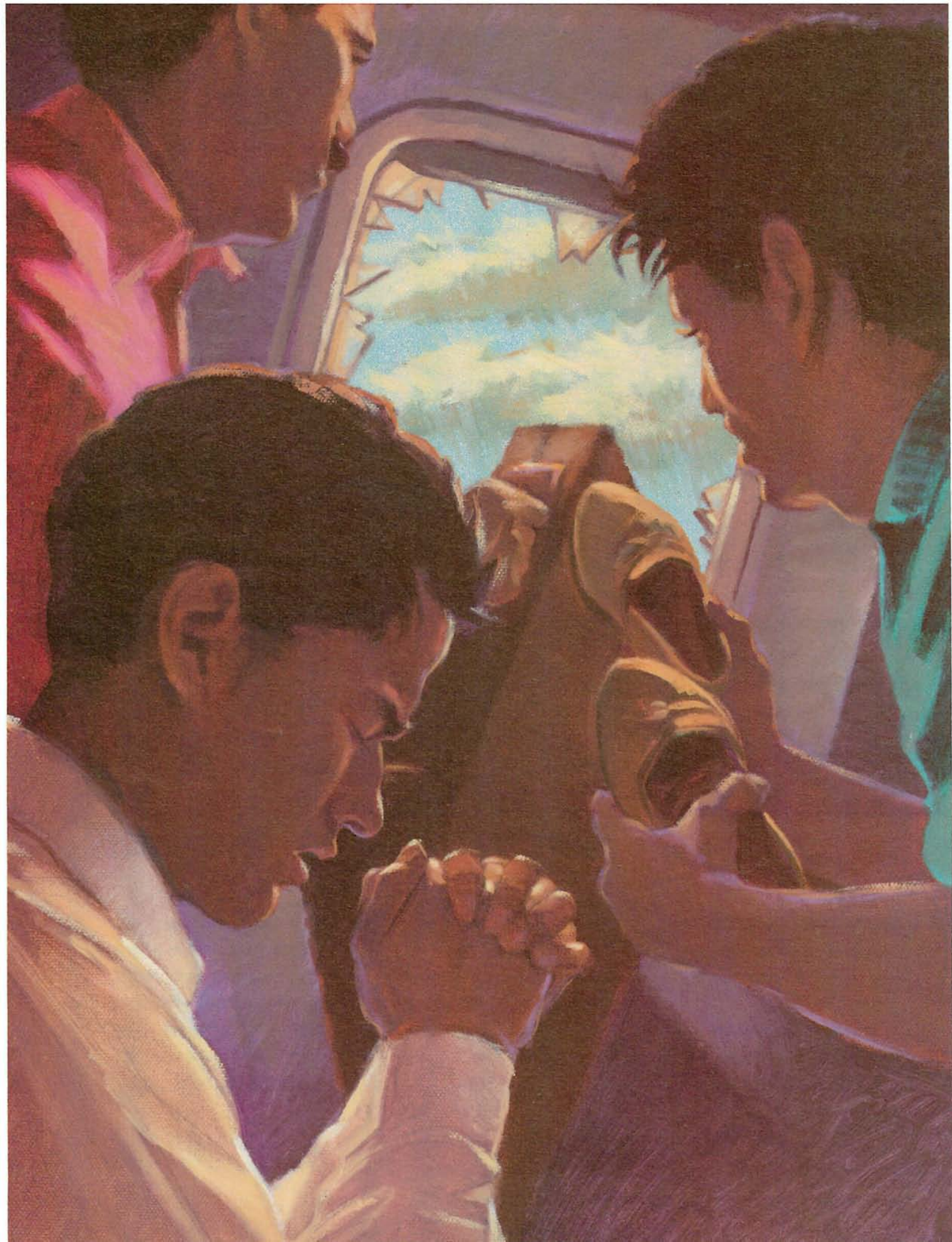


**왼쪽:**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결실하여 흑 백배, 흑 육십배, 흑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23)

**위, 왼쪽:** "화 있을찜저...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27 참조)

**중앙:**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2:27-28)

**오른쪽:**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자 할찜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까지에 족합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8, 33). □



# 로빈슨 크루소 섬에서 생긴 일

패트리샤 코바루비아스 솔라

우리 집은 칠레에서 서쪽으로 약 365해리 정도 떨어진 태평양 상의 조그만 섬인 로빈슨 크루소 섬에 있다. 이 섬의 이름은 미지의 섬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산 어떤 선원에 대한 18세기의 소설에서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 섬에는 약 5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 태평양의 이 조그만 섬에는 60명 정도의 회원과 두 명의 선교사로 구성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부가 있다.

그 섬에 가려면 비행기로 세 시간 동안 날아가거나 배로 이들 이상 항해해 가야 한다. 그 섬과 바다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었지만 섬 주민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배에 의존해 왔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심을 배웠다.

나의 오빠인 아드리안이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도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 이 곳의 의료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는 가족을 떠나 본토로 가야만 했다. 그는 자기가 타게 될 작은 비행기가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그 여행을 반대했지만 결국 가야만 했다. 그와 함께 탑승한 사람들은 조종사와 두 명의 텔레비전 통신원이었다.

그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걱정마, 오빠. 하나님께서 오빠를 지켜 보실거야."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영에 고무되어 내 방으로 가서 오빠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당신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라고 말문을 열었다.

"무슨 이야기죠?"

"아드리안이 탄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추락했소. 생존자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오."

감사하게도 탑승자 전원이 다 살아 있었다. 그들은 고기잡이 배에 의해 구조되어 이미 안전하게 섬으로 돌아왔다. 그들

이 부두로 돌아올 때 모든 주민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기쁨과 안도에 차서 박수 갈채를 보냈으며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그 두 명의 통신원들이 직장으로 나를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을 때, 조종사는 그들에게 창문을 깨서 가능한 한 무엇이든지 내버리도록 지시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물 위에 떠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옷 가방, 카메라, 신발 등 모든 것을 버렸다.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지시를 한 후 그들은 좌석 벨트를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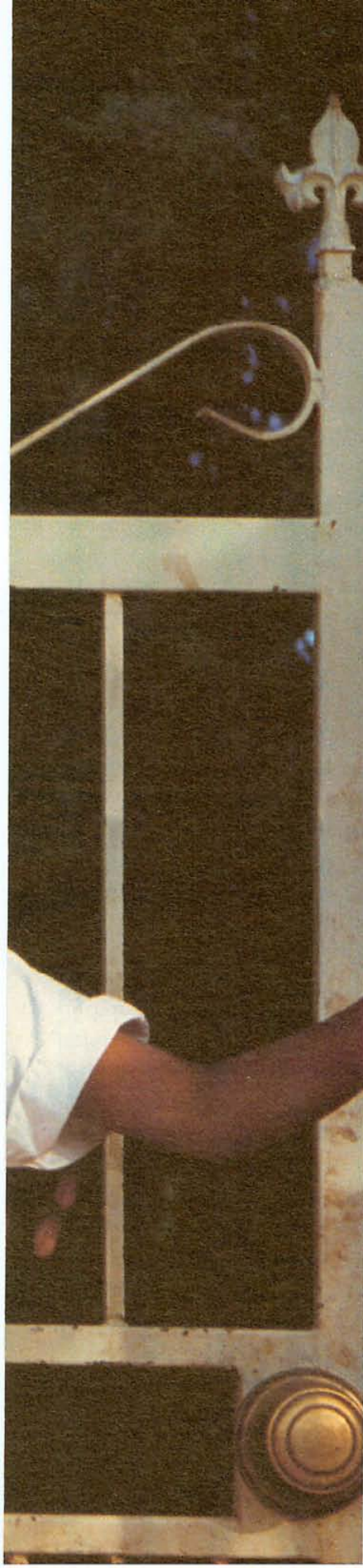
그 때 아드리안이 큰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님께 그들 모두가 살아 남아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들은 가장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모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 그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구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주는 나의 빛 왜 두려워하리"(찬송가, 48장)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통신원들은 그 찬송가를 알지 못했지만 아드리안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찬송 소리와 기도가 그들에게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비행기는 추락한 지 수 초 내에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나 그 시간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문을 열고 구명대를 부풀렸다. 그들이 고기잡이 배에 구조된 후 어떤 사람이 옷가방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드리안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우리 지부 회원들의 십일조가 들어 있었는데 그가 본토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네 사람 외에는 옷 가방만이 유일한 구조물이었다.

우리는 비록 지구상의 가장 외딴 섬들 가운데 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을 느껴 왔으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오셨다. □





# 줄리아 마빔벨라

대일 르바론

남아 공화국 소웨토의 줄리아 마빔벨라는 훌륭한 품모를 지닌 줄루인이다. 그녀의 거친 손에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 온 세월이 나타나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거의 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가꾸어 온 평온과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다. 77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일을 해냈으며 그녀가 이룩한 성공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그래도 모든 진실한 이야기가 그렇듯 그녀의 이야기 역시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 가난과 편견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또한 역경으로 인해 그녀는 더욱 세련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결국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발견을 하였다.

## 사랑하는 친척들

줄리아 놘피 느쿠베니는 1917년 12월 20일에 다섯 아이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그녀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학교 교사와 세탁부로 일하시며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애쓰셨다. 가난과 그 밖의 다른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줄리아는 계속 교육을 받았으며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남아 공화국에서 교장이 된 최초의 흑인 여성 중 하나가 되었다.

존 마빔벨라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린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

손녀와 함께 있는 줄리아 마빔벨라. 줄리아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와 가치관을 키우도록 도와주었다.

는 일을 포기하고 작은 푸줏간과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우려 갔습니다. 제 남편은 일백 명 중 한 명이나 있을 만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월급을 주었으며, 그 돈은 완전히 제 소유였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종종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씻곤 하였습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그는 제가 기저귀 빼는 것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서로 매우 사랑했습니다.

존은 전처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 줄리아는 남편의 전 아내와 아주 가깝게 지냈으며, 두 자녀도 친자식들처럼 키웠다. 줄리아의 첫번째 아들은 태어날 때 죽었지만, 후에 그녀는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다.

1955년, 줄리아가 마지막 아기를 갖게 된 지 두 달 쯤 되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자동차의 정면 충돌 사고로 비참하게 죽었다. 술취한 백인 운전사가 존의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사업차 여행 중에 있었다.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끝나자, 그녀는 남편의 소지품을 요청했다. 그녀는 경찰들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의 극히 일부분만을 그녀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상대방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그 사고의 잘못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줄리아는 너무나 괴로웠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줄리아는 경전에서 큰 가르침을 발견했다. “저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감동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돌을 던져서는 안되고, 용서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하도록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에 속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봉사의 삶

1945년 초기에 줄리아는 지역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회의 가사 모임에 대해 듣기 훨씬 전부터 그녀는 여성들이 다른 가사 기술을 서로에게 가르치도록 격려하는 주부라고 하는 여성 클럽을 시작했다. 그 후에 그녀는 검약을 주장하는 클럽을 시작했다. 존의 죽음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힘을 기울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역 사회에 대한 위대한 공헌 중의 몇 가지는 소웨토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1976년에 시작되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때였다. 그러나 줄리아는 젊은이들의 증오에 찬 행동들에 대해 우려하였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혼돈 때문에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웨토에서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그들이 한 일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애쓰게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에게 기본적인 원예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징열을 10년전쯤 딸 아이의 선천적인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자연식을 하는 동안 개발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작은 정원으로 사용할 땅조차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쥐들이 들끓는 땅을 깨끗하게 가꾸어 놓았다. 줄리아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힘들

게 뽑고 있는 것을 지켜 보던 다른 사람들도 마침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고 추한 것을 이롭고 아름답게 바꾸며 우리는 소웨토의 이곳 저곳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줄리아가 심었던 아름다움의 한부분은 바로 젊은이들의 가슴속이었다. “제가 그들과 함께 씨앗을 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애들아 보아라. 우리가 밭아래 이 흙을 볼 때, 그것은 굳고 딱딱하지만, 우리가 삽이나 포크를 밀어 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 작은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 덩어리를 잘게 부셔서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자라게 될 거야.”

“이 메시지가 젊은이들에 대한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쓰라림의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사랑을 보일 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지켜 봅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이 새일 수 없습니다. 핏자국이 있던 곳에 이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녀의 노력은 폭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피해의 복구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끈적한 폭동이 있었던 그 해에 줄리아는 여성 단체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모든 민족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긴박한 필요 사항을 느끼면서, 그녀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가가 내전을 피하는 데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던 평화를 위한 여성 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현재 그 기구의 국제 집행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재차 국제 아프리카 여성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줄리아는 교회 아프리카 지역 회장(왼쪽)인 제이 리처드 크라크 장로와 관리 감독인 메릴 제이 베이트맨 장로로부터 그녀의 지역 사회 정원을 위한 도구를 기부 받았다.

줄리아는 종종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지역 사회와 남아프리카 정부의 연락자로서 봉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때때로 수 개월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 연금 수령자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초대되어 그 주제를 다루면서 줄리아는 위원회의 지지를 받았고 자신의 주장에 새로운 정부의 관심을 끌게 하였다.

그녀가 애착을 가졌던 또 하나의 사업은 문맹 퇴치였다. 7개국어에 능통한

줄리아는 남아프리카 여성의 문맹 퇴치를 위해 결성된 한 기구의 780곳 이상의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10년 이상 일해 왔다.

#### 평화와 아름다움의 장소

줄리아는 그녀가 옹호하는 운동에 있어서 독보적인 대표자이다. 그러나 그녀의 모든 성취와 교제에도 불구하고, 1981년 두 명의 선교사들을 만났던 것보다 더 그녀에게 의미 있었던 일은

없다.

어느 날 줄리아는 소웨토의 폭동으로 파괴되었던 도서관을 수리하기 위한 계획을 이끄는 것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다. 뭐라고? 그녀는 스스로 반문해 보았다. 그들은 나를 신데렐라로 생각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그들은 다시 그것을 태워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요청에 대해 숙고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장소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그녀는 두 백인 젊은이가 먼지와 열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웨토에서 백인을 보는 것 자체도 드문 일이었는데, 하물며 그들이 흑인들을 위해 막노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줄리아는 호기심에 차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자신들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소개하고 그녀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듣도록 권유했다.

그녀가 그 부탁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깨끗하지 않았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 백인을 들여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것은 가족이 그들을 접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도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들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희 집을 청소하기 위해 삼 일간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줄리아는 말한다.

첫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정중히 대했지만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그녀의 결혼 사진을 보고 남편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하자 그들은 남편을 위해 침례가 베풀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순간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라고 줄리아는 회상한다. 저는 “그를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두 분은 저를 계속 놀라게 하셨어요. 저는 흑인이고 다른 교회에서는 죽은 자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은 제게 와서 저의 남편에 관해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다른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또 와 주세요.’ 그들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저를 방문했으며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참된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을 말할 수 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들에 관해 잊어버리고 그들에 관해 언급하지 않도록 배우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다시 조상을 숭배하게 될까 봐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또 저는 하나님과 어떻게 직접 이야기했는가에 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저의 모든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책은 참으로 저를 설복시켰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는 선교사를 만난 지 두 달도 채 못된 1981년 11월 28일에 침례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침례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문이 열리고 침례탕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는 참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권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 은퇴한 간호사이자 친구인 들리 헨리에타 앤드로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줄리아 마빔벨라. 이들 소웨토 지부의 두 회원은 그들의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해 도움을 손길을 뻗어 왔다.









사진 제공 : 유행간사

줄리아의 일상에 걸친 봉사는 남아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1985년에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개종한 이후, 그녀는 활동적인 회원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함께 교회에 참석하도록 이웃 사람들을 권유하고 정부 지도자들에게 물론경을 나누어 주었다. 줄리아의 딸 중 두 명과 여러 손자녀들도 교회에 가입하였다.

줄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 사업 도구 중 하나는 정원 가꾸기이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에 접하도록 하기 위해 땅에 대한 사랑을 이용한다. 최근에 그녀는 손자녀를 기르기 위해 애쓰고 있던 연금을 받지 못하는 한 할머니를 도왔다. 학교를 졸업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손자 중 하나가 따분해서 나쁜 장난을 하고 돌아다녔다. 줄리아는 그들에게 야채 씨앗을 주어서 심고, 잡초를 뽑고 정원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쳤다. 정원이 풍성해짐에 따라 그 가족들의 관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녀 중 한 명은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그녀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발견하고 있다.

줄리아는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을 지냈으며, 복음 교리만을 가르쳤고, 지금은 소웨토의 공보 책임자로 봉사한다. 또한 그

녀는 지부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매우 열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생활에서 가장 흡족한 순간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시간이다.

줄리아는 1985년 9월에 남아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제가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책을 옆으로 밀쳐 놓으며 ‘그건 백인들을 위한 말이야. 우릴 위한 게 아냐. 우린 선택받지 못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의롭게 산다면 고귀한 가족에 속하게 될 것을 압니다. 저는 이스라엘인입니다. 성전에서 의식을 수행할 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에게 인봉되고 부모님께 인봉되는 것은 제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제가 그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성신이 제게 이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줄리아는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성전 안에서 그녀는 생애 동안 주님의 포도원의 이쪽 저쪽에서 그녀가 가꾸어 온 평온과 사랑과 일체감을 풍성하게 얻는 기쁨을 발견한다. □

이 기사에 대한 일부 자료들은 질스 에이치 플로렌스 2세와 알 발 존슨 및 시 아이 렉스 반 콜러가 제공하였습니다.



그림 : 헤리 앤더슨,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생애 초기에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18-20)



남 아 공화국의 소웨토의  
줄리아 마빔벨라 자매는  
줄루인이다. 그녀는 평생 동안  
평온과 아름다움을 위해 헌신하  
였다. 이로 인해 그녀는 국제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77년 동안 그녀는 가난과 비극  
과 슬픔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기쁨을 얻기도 했다.  
“줄리아 마빔벨라”, 42쪽

